

# 박동원 떠난 KIA 타이거즈, 스프링캠프 과제는 ‘포수 육성’

박동원, FA로 LG행... 주전급 포수 가뭄

이정훈, 작년 자유계약선수로 롯데행

키움서 주효상 합류... 주전 무게감 부족

플레이어전트(FA)에서 합산 343억원의 계약을 만든 대어급 포수들의 이동에 KIA 타이거즈는 포수 가뭄을 맞게 됐다. KIA는 스프링캠프에서 포수 육성에 힘을 쏟아야 할 전망이다.

이번 FA시장에서 화두는 포수였다. 주전급 포수 4명이 팀을 옮기면서 두산 베어스와 4+2년, 총액 152억원 계약을 맺은 양의지를 비롯해 포수 네 명에게만 343억원이 쏟아졌다.

LG 트윈스였던 유강남은 롯데 자이언츠 유니폼을 입었다. 대신에 LG 포수의 빈 자리를 KIA에서 온 박동원이 메웠다. NC 다이노스는 두산에 양의지를 내주고 박세혁을 데려왔다. FA 결과로 두산과 NC는 주전 포수를 맞바꾸고, 롯데는 주전급 포수 자리를 채웠다. KIA만 주전 포수를 잃었다.

또 지난해 11월30일 KIA 소속 이정훈은 자

유계약선수로 롯데로 동지를 옮겼다. KIA는 이정훈을 전력 외 자원으로 판단했지만 그 덕분에 롯데는 부실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던 포수진을 보강했다. 반면 KIA는 전력 보강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포수진에 아쉬움이 남게 됐다.

KIA에서 포수가 나가기만 한 것은 아니다. KIA는 트레이드로 포수를 찾았다. 지난해 11월11일 키움 히어로즈와 트레이드를 통해 KIA가 신인 드래프트 2라운드 지명권을 키움에 주고 때마침 전역한 주효상을 데려왔다. 하지만 확실한 주전감이 없는 탓에 트레이드 등 추가 선수 보강이 필요하다는 분위기가

KIA는 팀 내 전력으로 2023시즌 준비에 나섰다. 지난 1일(현지시간) 미국 애리조나 투손 키노 스포츠플렉스에서 스프링캠프에 돌입한 KIA는 포수로 김선우, 신범수, 주효상, 한승

택을 데리고 갔다.

눈에 띄는 트레이드 협상이 없는 만큼 이 전력으로 시즌을 치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들이 쌓아온 성적과 경험을 보면 주전 마스키는 한승택이 쓰고 주효상이 백업을 맡을 가능성이 높다. 신범수와 김선우는 각각 KBO 정규시즌에서 60경기, 3경기를 소화하는 데 그쳤다.

야구에서 좋은 포수 없이 좋은 성적을 내기는 불가능에 가까운 만큼 KIA는 이번 스프링캠프에서 포수진 성장에 역점을 뒀다 할 전망이다.

포수는 투수를 제외하면 수비에서 가장 많은 플레이에 관여한다. 수비 시 투수에게 투구 배합과 코스를 요구해 상대 타자를 요리하는 ‘능동적 수비자’다. 또 포수는 야수의 수비 위치를 조율하고 작전을 전달하는 역할도 맡는다. 포수만이 투수를 포함한 모든 수비수를 마주 보고 수비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중요도가 높은 포수의 안정성이 떨어지면 팀은 대량 실점 위기를 맞는다. KIA의 올 시즌 성적이 포수진을 어떻게 꾸려나가는가에 달려있을 수도 있다.

이슬비 기자

2023 ARIZONA-OXIANA  
**SPRING TRAINING**  
KIA TIGERS BASEBALL CLUB

2023 KIA TIGERS 애리조나 - 오키나와  
**스프링캠프 참가 명단**

감독	김종국
코칭스태프	진갑용 정명원 곽정철 김상훈 이범호 박기남 조재영 이현근 홍세환
투수	김기훈 김대유 김승현 김우진 송후섭 양현종 유승철 윤영철 윤종현 이의리 이준영 이태규 임기영 전상현 정해영 최지민 메디나 앤더슨
포수	김선우 신범수 주효상 한승택
내야수	김규성 김도영 김선빈 류지혁 박찬호 변우혁 홍종표 황대인
외야수	김석환 김호영 나성범 이창진 최형우 소크라테스

\* 2023년 신인선수



## “절대강자는 없다”... 치열해지는 男배구리그

대한항공 2연패... 현대캐피탈도 돌출날축 중위권과 상대 전적 보면 봄배구 장담 못해 플레이오프와 챔피언전, 다음달 21일 개막

프로배구 남자부가 뜨거워지고 있다. 리그 1위 대한항공과 2위 현대캐피탈이 나란히 약점을 노출하면서 절대 강자가 없어졌다. 다음달 플레이오프를 앞두고 순위 경쟁이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

시즌 초반 연승을 달리던 1위 대한항공은 최근 2연패에 빠졌다. 대한항공은 4라운드 마지막 경기였던 지난달 24일 리그 6위 KB손해보험에 완패를 당했다. 대한항공은 이어 5라운드 첫 경기였던 지난 2일 한국전력전에서도 1-3으로 졌다.

막강 전력을 바탕으로 적수가 없을 것 같았던 대한항공은 최근 범실이 급증하면서 초반의 위용이 사라지는 중이다.

2위 현대캐피탈 역시 돌출날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4라운드 막판 우리카드와 한국전력에 밀려 당한 현대캐피탈은 4라운드 마지막 경기와 5라운드 첫 경기에서 연이어 OK금융그룹을 이겼지만 5라운드 첫 경기에서 또 한국전력에 털리며 잡혔다.

물론 대한항공·현대캐피탈과 중위권 간 승점 차는 크다. 6일 현재 대한항공은 55점, 현대캐피탈은 49점으로 3위 우리카드(39점)에 10점 이상 앞서고 있다. 대한항공과 현대캐피탈은 챔피언 결전전과 플레이오프에 직행할 확률이 다른 팀에 비해 높은 상황이다.

그래도 위험 요소는 있다. 각 팀과의 상대 전적을 살펴보면 자칫하다가는 봄배구에서 충격적인 패배를 당할 수 있다.

대한항공은 현대캐피탈에게는 4라운드까지 4승 무패를 기록했지만 우리카드, OK금융그룹과는 2승2패로 팽팽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대한항공과 우리카드·OK금융그룹 간 대결이 예상된다면 대한항공의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

현대캐피탈은 한국전력에 약하다. 대한항공에 약한 현대캐피탈은 한국전력과도 상대 전적에서 2승3패로 열세다. 특히 4라운드와 5라운드 맞대결에서 한국전력이 모두 이겼다. 현대캐피탈로서는 대한항공 공략법은 물론이고 한국전력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해 둘 필요가 있다.

봄배구는 다음달 21일 개막한다. 준플레이오프는 정규리그 3위팀과 4위팀 간 승점 차가 3점 이내일 경우에만 열린다. 남은 5~6라운드에서 4위 이내에 진입하기 위한 남자부 구단들의 경쟁도 뜨거워질 전망이다.

## 손흥민, 中 매체 선정 6년 연속 ‘아시아 최고 축구선수’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에서 아시아 선수 최초로 득점왕에 오른 손흥민(31)이 중국 스포츠매체로부터 6년 연속 아시아 최고 축구선수로 선정됐다.

중국 매체 티탄저우바오오는 6일 손흥민이 2022 아시안 골든볼로 에워드 수상자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2017년부터 6년 연속이자 통산 8번째 수상이다. 손흥민은 2014년과 2015년에도 연속 수상한 바 있다.

이 상은 프랑스 매체 프랑스풋볼이 시상

하는 발롱도르에 착안해 티탄저우바오가 2013년 처음 만들었다.

아시아축구연맹(AFC) 소속 국가나 팀에서 뛰는 선수들을 대상으로 하며 2013년 첫 수상자는 일본의 혼다 케이스케였다.

손흥민은 지금까지 10차례 시상식 중 8번을 수상해 최다 수상 기록을 갖고 있다. 2016년엔 오카자키 신지(일본)가 받았다.

올해도 손흥민이 256점(26.7%)의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다. 2021~2022시즌 EPL 득점왕에 오른 공로를 인정받았다.

## 친정팀 성남 찾아가간 황의조 “언젠가 돌아오겠다”

“성남에서 뛰 모든 경기와 모든 골 생생히 기억”

FC서울을 통해 프로축구 K리그에 복귀한 황의조가 친정팀 성남FC를 직접 찾아가 팬들에게 인사를 전했다.

지난 6일 성남FC 구단 유튜브를 통해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황의조는 성남 구단을 방문한 “저는 항상 유럽에서 축구하면서 항상 성남FC를 계속 응원하고 계속 찾아왔다”며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성남FC라는 팀이 자리 잡고 있었는데 어쩌다간 이렇게 팬분들한테 말씀이라도 드리고 싶어 찾아오게 됐다”고 말했다.

황의조는 또 “장담은 못하겠지만 제가 언젠가 꼭 성남으로 다시 돌아와서 같이 함께 했던 시절, 제가 성남에서 뛰었던 시절 그대

로 다시 한 번 성남을 위해서 뛰는 그날이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성남에서 뛰 시절에 대해서는 “저한테는 모든 순간이 다 새로웠다. 제가 유스팀에서 시작해서 프로 데뷔하는 순간, 우승컵을 들어 올리는 순간, 아시아챔피언스리그에 진출해 16강에 진출하는 순간이 다 기억에 남았다”며 “성남에서 뛰 모든 경기와 모든 골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될 정도로 저한테는 소중한 기억”이라고 돌이켰다.

황의조는 성남의 2부 리그 강등에 관해 “감독님도 바뀌었고 새로운 시즌을 K리그2에서 맞이하게 됐는데 모든 선수들과 코칭스태프들 구단 식구들, 성남 응원하는 모든



팬분들은 성남이 뛰어야할 위치가 어디인지 정확하게 알 것이라 생각한다”며 “이번 시즌 좋은 성적을 냈으면 좋겠고 항상 성남을 응원하면서 좋은 위치로 다시 올라올 수 있도록 기대하겠다”고 밝혔다.

뉴시스

## 안현수 “연금 일시불 수령 후 리 귀화 사실 아냐”

자신 SNS 통해 러시아 귀화 과정 해명 “전액 기부”

러시아로 귀화한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빅토르 안(38·한국명 안현수)이 최근 성남시청 빙상팀 코치직 지원 당시 논란이 된 올림픽 메달연금 일시불 수령에 관해 해명했다.

빅토르 안은 7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모두가 힘든 시기에 최근 시끄러운 이슈로 이름이 오르게 돼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궁급해하시는 부분들을 답변드리지 못한 이유는 채용 과정이 진행 중이었기 때문이다. 자칫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판단 하에 발표가 난 후 말씀을 드려야 할 수밖에 없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30년간 오롯이 운동만 하며 살아왔고 성격상 제 목소리를 내는 게 어려운 일”이라며 “그 결과 사실이 아닌 부분들이 마치 사실처럼 비쳤고, 지금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에 관해 그 과정을 한 치의 거짓 없이 말씀드리겠다”고 덧붙였다.

빅토르 안은 2011년 러시아 귀화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2011년 6월 러시아로 출국했고 러시아빙상연맹 회장과 향후 훈련 계획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던 중 러시아 소속 러시아·호주 이중 국제 선수인 타티야나 보투롤리나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래서 이중 국적이 가능한 줄 알고 알아본 것이 사실”이라고 했다.

이어 “하지만 저는 그 선수처럼 특별 사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됐고 고민 끝에 7월에 귀화 결정을 한 것”이라며 “수령한 일시금은 돌려드리는 게 맞다고 판단해 심장 수술이 필요한 아이와 재활 및 치료가 필요한 후배 선수에게 전액 기부했다”고 설명했다.

또 “그러던 8월에 러시아발 기사로 귀화 절차가 알려지면서 한국에선 연금을 7월에 먼저 수령하고 8월에 귀화를 결정한 것처럼 잘못 알려졌다. 귀화가 알려진 것은 8월이지만 7월에



모든 것을 결정하고 절차대로 진행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한국빙상지도자연맹은 빅토르 안이 성남시청 코치직에 지원하자 보도자료로 통해 “빅토르 안은 한국 국적을 버리고 러시아로 귀화할 줄 알았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그는 귀화 직전 연금을 일시불로 받아 간 사실이 추후 드러났다”며 “이중 국적이 안 된다는 것을 미리 알고 연금을 일시불로 받아 간 뒤 몰랐던 착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침묵하던 빅토르 안이 성남시청 코치직 채용이 종료되자 반박에 나선 것이다.

## 제주 구자철 “해설보다 축구가 쉬워...올시즌 팀 도움 확신”

프로축구 제주 유나이티드 베테랑 구자철(34)이 올 시즌 팀에 도움을 주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2022 카타르월드컵 때 맡았던 중계보다는 직접 뛰는 게 쉽다는 소회도 내비쳤다.

구자철은 7일 제주 서귀포 호텔에서 열린 하나원큐 K리그 2023 동계 전지훈련 미디어 캠프에서 월드컵 해설에 관한 질문에 “제가 계속 해왔던 게 쉽다”며 해설보다 축구에 익숙하다는 점을 언급했다.

구자철은 올 시즌 동계 훈련을 잘 소화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아무래도 부상을 항상 조심해야 한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몸 관리를 하면서 근육이나 컨디션 등에서 훈련을 잘 소화하고 한국에 돌아왔다”며 “그래서 부상 없이 꾸준한 경기장에 설 수 있다면 팀에 도움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코칭스태프와 선수들 간 가교 역할도 하고 있다. 구자철은 “주장단 멤버들은 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선수들이고 고참이라 선수들 가고 역할을 하는 수단”이라며 “그런 부분을 올 시즌 준비하면서 감독님이 먼저 다가왔다. 대화를 하다보면 신뢰가 쌓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남기일 제주 감독은 구자철을 향한 기대감을 숨기지 않았다. 남 감독은 “구자철이 지난 시즌 왔을 때는 컨디션이 100%가 아니고 좋지 않은 상태였다”며 “컨디션을 끌어올리는 데 시간이 걸리고 잔부상이 많아서 팀에 큰 기여를 못했지만 그래도 항상 선수단에서 영향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 시즌은 동계 훈련을 잘하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기대해도 좋을 만큼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다”며 “구자철은 항상 긍정적인 부분이 있어서 그라운드에서 좋은 역할을 기대한다. 팬들도 구자철을 많이 좋아해서 경기장에서 좋은 모습을 보일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